
-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 실천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과천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4개월 남짓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취임 행사를 취소하고, 취약지역을 둘러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소화했던 것이 엇그제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첫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처음의 그 마음처럼, 4년 동안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시장 주재로 실천계획 보고회를 가진 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15개 분야, 84개의 실천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공직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시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든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이라는 시정구호처럼, 과천의 미래를 만드는 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 과천에서의 삶이 행복하도록 쉽 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선 7기 4년간 지켜갈 저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 즉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의 자랑이며, 소중한 자산이기도 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과천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생태길 조성과 양재천 수질 개선, 양재천 쉼터 및 산책로 정비에 힘을 쏟아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천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대표 명산인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10.2km 구간의 생태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로부터 생태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숲길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과천 시민들이 사랑하고 걷고 싶은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적인 교통 정체 구간인 과천~이수간 도로에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터널 건설과 과천~송파간 도로사업이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GTX-C노선 과천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을 통과하는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서울 진입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대로를 통과하는 수도권 광역버스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천대로변 상·하행선에 버스 정류장을 신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버스운송회사 및 경기도, 관세 시·군 등과 협의하여 내년 중 정류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류장이 완성되면 시민들의 서울과 인천, 수원 등지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동, 별양동 등 중심 상권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기구를 구성해 새로운 도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유희지를 포함한 전체적 활용방안과 개발에 대한 우리시 주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에 따르는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우리 과천시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와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맞벌이부부 육아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사업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 융합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중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창의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급식비, 문화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75세 어르신 중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해 효도의료비 7만원, 효도교통비 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입니다. 지역 화폐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임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과천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과천 축제가 명실공히 시민 주도형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중에 과천문화재단 설립을 완료하여 과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의 성장 동력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하고, 경기도와의 공영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시가 벤처기업 유치로 인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임기내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첨단산업 분야 기술 성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업 아이템 발굴 코칭과 창업지도, 청년우대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소통으로 하나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임기 동안은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9월 시장 직속 기관인 시민사회소통관을 신설해 소통정책 수립과 갈등 조정, 시민 여론수렴 등 시민 및 대외 협력분야에 대한 기능을 한층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소통마당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점차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한층 더 확대하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제를 도입·정착시켜 투명한 행정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과천은 지금 도시의 위상, 외형과 생활여건 등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약의 실천과 변화를 통해 달라질 우리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시민, 공직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이 시민들이 아끼고 자부심을 가지는 삶터, 일터,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